청년 취업난부터 중장년 고용불안까지...고용보험 데이터로 해법 찾는다

2026-11-12 13:00:00

고용정보원·노동부, 12일 고용행정 개방데이터 학술대회 개최
세대 간 일자리 관계·청년 경력단절·실업급여 제도 개선 등 논의



[한국고용정보원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청년층의 취업난과 중장년층의 고용불안,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일자리 위기 등 노동시장 현안을 실제 고용보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특히 중고령층의 고용 확대가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장기적인 경력단절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고용행정 개방데이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자료와 사업체 패널자료 등을 활용한 실증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핵심 의제는 청년 고용 문제다. 김미경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과 장기 이력단절 문제를 분석한다. 남기곤 한밭대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 일자리의 특성을 비교한다.

특히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중고령층 고용과 청년층 고용의 관계가 부문별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다. 정년연장과 계속고용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청년 일자리 감소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주목되는 연구다.

고용안전망 개선 방안도 논의된다. 강신혁 전남대 교수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도입의 기대효과를, 안준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정 유형과 재취업 경로를 분석한다.

지역 고용위기와 산업전환 문제도 다뤄진다. 비자발적 실직에 따른 장기적인 임금손실과 고용안정성 변화, 지역·산업별 고용위기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등이 주요 연구 주제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고용행정 데이터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실효성 있는 분석 결과를 공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정책 수립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4661

Copyright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